

2017 새 설계

김 양 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 근로단축 연계 숨은 일자리 발굴”

인자위 공조 고용시장 분석

청년 진로-취업-근속 지원

고령자·경단녀 맞춤형 정책

“지역에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이러한 일자리 기회가 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임한 김양현(56)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은 지난 1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도 더 많은 이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기업의 채용지원금과 연계해 근로시간 단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숨어 있는 일자리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확산하는 등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고령자, 일·육아 병행을 원하는 여성,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상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로-취업-근속 등 단계별 지원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우리지역의 일자리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 지나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정한 근로여건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광주인자위)와의 지원·협력 방안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간 광주인자위는 지역의 훈련수요 조사와 공동훈련센터를 통한 훈련,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러한 역할에 맞게 올해부터는 지역 내 각종 일자리 문제가 광주인자위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인자위는 그간 훈련사업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광주권역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광주권의 노동시장의 상세한 분석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중복 상황 점검 ▲일자리서비스 기관간 연계 활성화 ▲일자리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

고 있다.

그는 또 “광주인자위의 이러한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상 특별위원회인 노사민정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노동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과 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까지는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사간의 갈등양상인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김 청장은 “다만,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만 보지 말고 청년연장과 제2의 인생 설계,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의 다양한 관점과 결부시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임금피크제 보다는 청년연장 또는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시킬 경우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갖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문제는 그간의 경직된 근속급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를 성과급 등으로 개편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최근의 변화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광주·전남에는 호기이며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로 살려 나간다면 광주의 일자리 상황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김 청장은 광주 인성과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35회)해 고용노동부 행정사무관, 목포지방노동사무소 소장,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안전보건정책과 과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역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거래촉진사업 참여